20197031 사회복지학과 박준형

다양성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현대사회에서 다양성은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로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성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는 갈등의 모습을 보인다. 먼저 다양성의 개념을 통해 다양성의 가치를 고찰해보도록 한다.

다양성의 사전적 의미는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은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양성의 사회과학적 접근으로 Milliken과 Martins(1996)는 관측이 가능한 경우와 관측이 어려운 경우 두 가지로 분류했다. 관측이 가능한 다양성은 인종, 민족적 배경, 연령, 성별 등이 있다. 관측이 어려운 다양성은 학식, 기술 능력, 기술적 배경, 조직 내의 수명, 사회경제적 배경, 인격이나 가치관 등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다양성은 대부분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으로 사용한다. 최명민 외(2009)는 문화다양성은 다양한 민족집단이 자기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유하면서 사회와 공존하거나,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를 보전하면서 다양한 민족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표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언어나 의상, 전통, 사회를 형성하는 방법, 도덕과 종교에 대한 관념, 주변과의 상호작용 등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다양성의 개념을 사전적인 의미에서 사회과학적 의미까지 보았을 때, 다양성은 근원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특성이라면 현대사회에서는 다양성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갈등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견해로 다양성은 하나의 특성이며 이러한 특성을 통해 서로 다른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성의 갈등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정체되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양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나아가 통합할 수 있다. 다양성의 이점을 알아보고 다양성의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을 고찰하여 본질적인 다양성을 통해 통합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한다.

이 에세이는 Wood(2005), 다양성: 오해와 편견의 역사가 주가 되며 그 밖에 다양한 문헌을 통해 분석한다.

(1) 본질적인 다양성

Wood(2005)는 미국 사회에서 다양성이 지닌 많은 의미 중에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다양성Ⅰ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근사치를 구해 많은 사람에게서 동의를 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인구의 13퍼센트가 자신을 아프리카계 후손으로 자신을 아프리카계 후손으로 생각한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지니는 의미를 다른 사람과 토론할 수도 있다. 다양성Ⅱ는 이상이다. 이는 각각의 집단을 서로 구분하고, 각자 고유한 오랜 전통이 있다고 믿으며, 그들이 상호존중과 존경, 관용의 정신으로 함께 모여 사는 사회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상의 구체적인 모습에 일반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많은 사람은 서로의 이상에 공감하지 않으며, 서로 공감하는 사람들이라도 각자가 선호하는 바가 다르다고 말한다. 그리고 진정 다양한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다양성Ⅰ과 다양성Ⅱ의 구분이 좀 더 명확하고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 두 가지 종류의 다양성

을 모두 경험하고 있으며, 하나는 세상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모방해 인위적으로 창출한 것이다.

세상과 실재하는 다양성에는 자연적인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간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도 포함된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며,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세계관을 지녔고, 상호 갈등의 요소가 담긴 신념을 받아들이며, 서로 화합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고, 집단을 나누거나 서로에게 적대감을 갖는다. 인류가 완전히 동질화되고 통일될 것이라는 가정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은 민족 간의 적대감, 분리주의자들의 예로 알 수 있다. 재주가 있고 운이 좋은 정치 지도자들은 각자의 구역을 넘어 서로 협상을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침략이나 결혼, 탄압을 통해 서로의 경계를 허물어트리기도 한다. 하지만 불화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것이 인간이 처한 상황이다.

세상의 진정한 다양성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특징을 지녔다. 우리는 가능한 세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진정한 다양성에는 조건이 따른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자연의 다양성은 그 자체로 존재할 뿐 선도 악도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복잡한 면모를 이해하려는 대상이 될 뿐이다.

Wood(2005)는 인위적인 다양성은 가치가 부족하다고 한다. 도덕적으로 중립인 척하는 교육을 위한 장치일 뿐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고상한 열망이 부당한 사회적 합의로 좌절되고 사정이 더욱 악화되기도 한다. 인위적인 다양성이 자비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다양성을 선호하는 태도가 공정해 보일 수 있지만, 인위적인 다양성은 본질적으로 비인간적이다. 개인을 하나의 사회 집단의 전형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개인의 존재는 거부할 수밖에 없고 타인의 온전한 인간성 또한 부정하게 된다.

그렇지만 다양성의 이상은 분명 가치가 있다. 실제 지식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지니고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만날 때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2) 다양성의 고정관념

다양성은 개인을 하나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가치로서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인종, 민족, 연령, 성별 등 집단으로서의 다양성을 표출하고 있다. 인종, 민족, 연령, 성별이 개인을 구성하는 복합적인 특성이지만 반대로 개인의 특성 중 일부분이다. 집단을 통해 개인을 결론짓게 되면 생태학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집단에 속한 개인은 사회가 정의 내린 집단의 틀에 끼워 맞추는 잘못된 행동을 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질적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있을 때 그 존재는 사회가 정의 내린 집단의 모습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다. 사회에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시선이 존재하며, 이러한 고정관념에 대항하여 투쟁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틀을 없앤다고 해서 항상 이상적인 다양성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한 집단이 특정 부류의 집단을 비정상적인 다수로 만들고 나머지는 소수로 전락시킬 수 있다.

(3) 사회정책으로의 다양성

사회정책으로서 다양성을 추구할 경우, 제도적인 불공평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불공평이란 개인이 자신의 인종, 계급, 성별 혹은 다른 피상적인 정체성의 일부로만 취급되고, 고유한 생각과 창조적인 활동의 주체로서 여겨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미 문화다양성을 토대로 사회통합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출생과 같은 인구 구조 문제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이 정착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특정 집단에 치우쳐서 평등성에 영향을 줄 경우 혐오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사회정책으로 다양성을 추구한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인종, 민족, 성별 등과 같이 획일적으로 정책을 설정했을 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어떠한 개인이든지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사회구조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4) 다양성이 주는 이점

장재윤(2018)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창의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양성이 높을수록 팀 내 구성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에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를 위해 토론을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생각과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른 구성원의 생각과 관점에 도전함으로써 창의적 마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양성은 하나의 특성이지만 자연적인 다양성과 인위적인 다양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연적인 다양성은 본질에 가깝기에 복잡하고, 인위적인 다양성은 피상적인 모습으로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이나 모습을 개인이 옷으로 입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다양성의 갈등을 정체되어있는 상태라고 보았고 나아가 사회통합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었던 인위적인 다양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하나의 주체로서의 자유로운 개인이 모였을 때 보이는 본질적인 다양성의 모습을 시작으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인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번 에세이를 통해 본질적인 다양성에 대해서 고찰해볼 수 있었지만,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접근으로 사회과학적으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적절한 예시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필자를 지금에 사회정책과 다양성을 위한 운동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무의미한 것은 없기에 많은 행동과 그 속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주체로서 올바른 방법으로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

참고 문헌

김혜영 외 12명(2021),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학지사.
장재윤(2018),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심리학적 접근, 집문당.
최명민, 이기영, 최현미, 김정진(2009),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학지사.
Frances J. Milliken and Luis L. Martins(1996), Searching for Common Threads: Understanding the Multiple Effects of Diversity in Organizational Groups, Academy of Management.
Peter Wood 저 김진석 옮김(2005), 다양성 오해와 편견의 역사, 해바라기.